

IBK창공(創工) 구로 개소식

# 축사

2018. 10. 1. (월) 10:00 ~  
IBK창공(創工) 구로

금융위원장  
최종구

## I.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IBK 창공(創工) 구로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님,  
산단경영자연합회 김기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센터개소를 위해 힘써 주신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행장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오늘의 주인공인 창공(創工) 입주기업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Ⅱ.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

작년, 7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話頭)로 삼고  
정책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두려움 없는 창업과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성장단계의 자금공백 해소를 위한 성장지원펀드 조성,  
회수시장으로서의 코스닥 시장 역할 강화,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금융분야의 혁신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허용하고,  
법 제정에 앞서 가능한 금융테스트베드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분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신보 마포사옥에  
대규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마포(창업공간)-신촌(대학)-여의도(금융기관)”가 연결된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더욱 밀도 높은 청년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영업점을 활용하여 청년기업에 사무공간 및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행의 IBK창공도  
청년창업 생태계가 풍부해지는데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보 마포사옥, IBK 창공은  
단순히 물리적 사무공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혁신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장지원펀드와 연계하여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성장자금 지원을 위해  
4년간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혁신성,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투자나 자금지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치중된 담보대출도  
동산으로 다변화하고,  
과거 재무성과가 아닌  
미래 수익성을 여신심사에 반영하는,  
선진적 기업금융 인프라도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 **Ⅲ. 혁신창업 기회의 장[場]으로서 IBK창공[創工]**

---

IBK 창공센터는  
금융기관과 창업기업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은행공간에 창업기업을 직접 입주시켜 시너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투융자,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고,  
은행은 잠재적 우량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Win-Win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은행은  
혁신창업 붐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IBK창공 3호점의 지방개소를 시작으로  
창업보육 공간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

한나라 초기,  
제자백가의 철학서인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새가 오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먼저 심어라\*”고 하였습니다.

\* 욕래조선수목(欲來鳥先樹木)

수요자나 정책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사업의 기회창출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개소하는 IBK창공 구로가  
입주기업 여러분들이  
창공(蒼空)으로 비상(飛上)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창업인 여러분도,  
혁신적 생각과 두려움 없는 마음을 무기로,  
혁신성장의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